

국제교류교육원 해외 단기 어학연수 보고서

이 름	권상민	소 속	전자공학부
연수 국가	UK	연수 기관	University of Gloucestershire
연수 기간	2019.01.07~2019.02.01		

근 한달 간의 어학연수가 끝났다. 이제 마무리를 할 시간이다. 이 보고서로 내가 경험한 모든 것과 그로 느낀 점을 다 서술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해외연수를 가는 사람들이든 그저 스쳐 지나가는 글이 되든 누구에게나 도움이 되는 글이 되었으면 한다.

연수 이전이나 이후에나 바뀌지 않는 생각이 있다면 언어도 일종의 도구라는 것이다. 그리고 도구를 익히는 데 있어 가장 좋은 방법은 직접 사용해보는 것이다. 안타깝게도 영국에서 만난 대다수의 한국인들은 그렇지 못했다. 만약 외국인을 만날 기회가 생긴다면 누구에게든 질문을 해보라고 조언하고 싶다. 특히 연수를 가는 경우라면 외국인 친구들부터 학생 복지관까지 기본적으로 당신이 배우러 왔다는 인식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당신이 가진 편견, 당신이 가진 견해나 경험, 무엇이든 좋다. 표현하려고 노력하고 노력한 만큼 돌려 받으라고 조언하고 싶다. 또 연수 당시에 지켜본 한국 학생들은 영어 문법에 대한 지식이 미비해 정확한 문장을 만들어 내지 못한다는 점, 그리고 적절하지 못한 발음을 낸다는 것에 대한 지적을 계속해서 받았던 기억이 난다. 또 주말을 잘 이용했으면 한다. 대부분 학교에서 내어주는 과제는 집에 가서 10분 안에 끝낼 수 있을 정도로 쉽다. 금요일 저녁에 끝내버리고 영국 곳곳을 돌아다녀 보는 것을 추천한다. 글로스터셔의 경우 지리적으로 런던, 옥스퍼드,巴斯와 매우 가깝다. 이들 도시를 방문해보는 것으로도 견문을 늘리고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과학적 유적지를 중심으로 돌아다녔는데 이런 경험을 절대 잊지 못할 것이다. 차분기계, 증기기관, 고대 로마의 과학, 그리니치 천문대 등을 책이 아닌 직접 눈으로 보는 것은 매우 인상적인 경험이었다.

영국의 가장 부러웠던 점으로 존중과 배려의 문화를 꼽을 수 있다. 단적으로 어딜 가나 장애인을 배려하는 시설이 마련되어있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글로스터 대성당에 방문했을 때에도, 옥스퍼드 대학을 방문했을 때에도, 심지어는 집에서도 장애인을 배려하는 시설물(승강기, 손잡이, 경사로 등)이 반드시 존재했다. 소수자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문화는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아닌가 싶다. 또 이러한 존중은 우리나라의 비정상적인 전체주의적 사고와 완전히 대척점에 있었다. 오히려 그곳에서 나는 편안함을 느낄 수 있었다.

사람들에게서 이전까지는 느껴보지 못한 여유를 느낄 수 있었다. 모든 상점은 6시 이후 문을 닫는다. 학교는 더더욱 그렇다. 그리고 외국의 친구들은 모두 그들의 행복을 위해 고심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대한민국에서 느꼈던 미래에 대한 불안감, 그로 인한 우울함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오직 자신을 생각하며 행복한 미래를 그려갈 수 있는 것이다. 설혹 내가 만난 사람들만 그런 것인지도 모르나 이런 여유는 분명 긍정적이며 본받을 만한 것이었다고 생각한다. 영국에서 나는 오직 영어만을 배운 것이 아닌 사람들과 이야기 나누며 나를 알아보는 시간으로도 기억한다.